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산업경제연구부 조승현 부연구위원
(063-280-7145)
- **담 당**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보도시점: 2019년 5월 15일(수)부터

농식품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

**농생명수도 전라북도의 입지 공고화를 위해 경쟁력 강화,
이익공유, 핵심자원 확보 등 10가지 대응방안을 제시**

- 어그테크(Agtech)*와 푸드테크(FoodTech)**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증대에 따른 공급과잉의 문제와 신시장 개척의 한계가 있는 중소농민들의 퇴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생명수도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.
 - * 어그테크(Agtech): 농업(Agriculture)과 첨단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로 농업생명공학기술, 정밀농업 등으로 정의되고 있음
 - ** 푸드테크(FoodTech): 식품(Food)과 첨단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로 O2O(Online to Offline), 푸드 3D프린터 등 분야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음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'농식품 미래기술 전망과 전라북도 대응 전략'(통권 194호)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으로 글로벌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 생산·유통·소비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미래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.
- 농식품 산업분야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율주행 트랙터, 농업용 드론, 자율주행 잡초제거 로봇 등 '지능형 자율주행 농기계'와 무인자동 딸기수확기, 무인상추재배로봇 등 '무인 농작물 재배시스템'

이 구축되고 있으며,

-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푸드 3D 프린터, 요리 로봇 팔 등 '조리의 자동화'와 초저온냉동냉장기술의 보급과 자율주행 운송수단의 식품배달 영역 확장 등 '농식품 유통기술 혁신'이 지속되고 있다.
- 농식품 분야의 미래기술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고 간편한 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, 무인화·수경재배 기술로 고령화와 용수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, 급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증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.
- 그렇지만 생산효율성 증대에 따라 중소농 쇠퇴와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수 있으며, 농산물 가격변동성의 심화, 대규모 자본 중심으로 농식품 독과점 산업구조가 재편될 우려가 있다.
- 조승현 박사는 "이러한 농식품 미래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, 농생명수도 전라북도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지만,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며, 경쟁력 강화, 이익 공유, 핵심자원 확보 등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"고 주장하였다.
- 세부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'전라북도 전략품목의 설정', '출하 시기조절·에너지절약기술개발', 'O2O(Online to Offline) 플랫폼 연계' 등이 필요하며, 이익 공유를 위하여 '생산자 조직화·협동조합 강화', '대규모자본 진입 전 피해보전방안 마련', '농업법인 투자활성화' 등을 제안하였고, 핵심자원 확보를 위하여 '스마트 육묘산업 육성', '초저온 냉동냉장산업 육성', '푸드 소프트웨어 신산업 육성', '지역농식품 R&D 혁신 강화'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.